

갯기름나물 약재명(植防風)의 연원에 대한 고찰

김정훈^{1#}, 김한영², 도의정³, 이금산^{3,4*}

1 :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약물의학교실, 2 :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학과
3 : 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 4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Review on the origin of herbal name, Sik-bang-pung, for the root of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

Jung-Hoon Kim^{1#}, Han young Kim², Eui Jeong Doh³, Guemsan Lee^{3,4*}

1 : Division of Pharmacology,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2 : Department of Korean Medical Scienc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3 : 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4 : Department of Herb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Sik-bang-pung (植防風, *Peucedani Japonici Radix*), the root of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 (Apiaceae), has often been used as a substitute for Bang-pung (防風, *Saposhnikovia Radix*) in the past, but recently it is treated as a counterfeit of Bang-pung or a kind of 'Jeonho (*Peucedani Radix*)'. Hence, it is crucial to investigate the origin of herbal name to provide appropriate usage of Sik-bang-pung.

Methods : The classic and contemporary literatures regarding to the herbal medicines and botanical nomenclature were searched to find the herbal and botanical origins of Bang-pung and Sik-bang-pung, respectively.

Result : The botanical descriptions of Bang-pung (防風) were consistent throughout the classic literatures and its botanical species was determined as *Saposhnikovia divaricata* Schischkin (Apiaceae) in the compendium. In the literatures published in the Joseon Dynasty, 'Byeong-pung-na-mul' was recorded as the medicinal plant of Bang-pung, but its botanical species could not be confirmed. In Japanese literatures, Bang-gyu (防葵) was confirmed as Mok-dan-bang-pung (牡丹防風; botan-bōfū in Japanese), which was determined as the herbal name of the root of 'Gaet-girum-namul (*P. japonicum*)'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rule. The roots of Gaet-girum-namul was medicinally named as Mok-dan-bang-pung (牡丹防風), Sik-bang-pung (植防風), or San-bang-pung (山防風) in the past decades in Korea. Among them, Sik-bang-pung might be chosen as the herbal name, but its nominal origin could not be found.

Conclusions : The herbal name, Sik-bang-pung, was presumably affected by Japanese botanical nomenclature. Although its medicinal application is still controversial, Sik-bang-pung should be considered an independent herbal medicine.

Key words : Bang-pung, Sik-bang-pung, *Saposhnikovia divaricata*, *Peucedanum japonicum*, origin of herbal name

*Correspondence to: Guemsan Lee, Department of Herb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ro, Iksan-si, Jeonbuk, 54538, Republic of Korea.

· Tel : +82-63-850-6985

· Fax : +82-63-850-6985

· E-mail : rasfin@wku.ac.kr

#First author : Jung-Hoon Kim, Division of Pharmacology,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si, Gyeongnam, 50612, Republic of Korea.

· Tel : +82-51-510-8456

· Fax : +82-51-510-8420

· E-mail : kmsct@pusan.ac.kr

· Received : 12 August 2023

· Revised : 31 August 2023

· Accepted : 25 September 2023

I. 서론

植防風(*Peucedani Japonici Radix*)은 「대한약전의한약(생약)규격집」에 갯기름나물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 (산형과Apiaceae)의 뿌리로 수록되어 있다¹⁾. 갯기름나물은 한반도 해안가에 자생하는 식물로²⁾, 「식품공전」에서는 ‘순, 줄기, 잎’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지정하고 있고³⁾, 민간에서는 ‘방풍나물’로 불리고 있으며 어린 잎과 줄기를 식용하고 있다⁴⁾. 植防風은 문헌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1970년대 또는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防風(*Saposhnikoviae Radix*)의 대용품으로 사용되어 왔고, 2000년대까지도 防風의 대용품이라는 인식이 지속되었다⁵⁻⁸⁾. 최근까지도 일부에서는 과거 문헌기록을 인용하며 植防風을 防風의 대용품으로 인식하였다^{9,10)}. 하지만 防風은 방풍 *Saposhnikovia divaricata* Schischkin (산형과Apiaceae)의 뿌리로, 解表祛風, 勝濕, 止癢하는 효능으로 感冒頭痛, 風濕痺痛, 骨節酸痛, 風疹瘙癢, 四肢攣急, 破傷風 등을 치료하는데, 현재 본초학 분야에서는 植防風을 防風의 대용품이 아닌 僞品으로 규정하고 있다¹¹⁻¹³⁾(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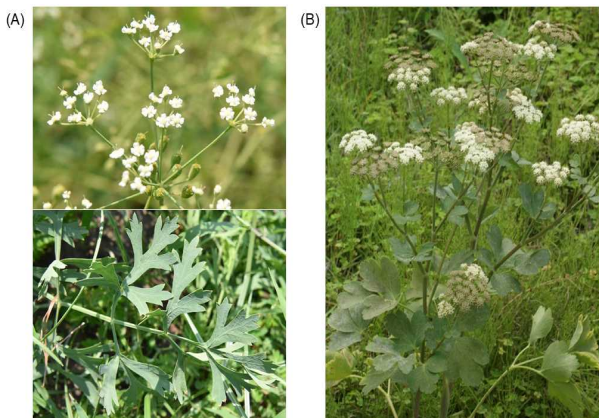


Figure 1. The original plants of *Saposhnikovia divaricata* (A) and *Peucedanum japonicum* (B), pictured by an author (Kim, Jung-Hoon).

비록 현재는 갯기름나물을 한약재 防風의 위품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과거 防風의 대용품으로 사용했던 기록, 공정서에 수록된 植防風이라는 약재명 및 갯기름나물의 본초학적 효능에 대한 미정립으로 인해 여전히 防風과 혼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갯기름나물 뿌리는 파골세포형성 억제제를 통한 골다공증 억제 확장¹⁴⁾, 알러지성 기도 염증 유발 동물 모델에서 면역반응 매개물질 감소 및 염증감소를 통한 항천식 효과^{15,16)}, 골관절염 유발 동물 모델에서 염증 반응 감소¹⁷⁾, 아토피성 피부염 유사 염증 유발 동물 모델에서 염증반응 감소¹⁸⁾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동물실험에서의 효능 연구와 植防風의 본초학적 효능과의 연관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植防風의 약용 기준에 대한 정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공정서에 갯기름나물을 植防風으로 수록한 것과는 달리, 중국과 일본의 공정서에는 갯기름나물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중국에서는 갯기름나물의 식물명과 약재명을 모두 濱海前胡로, 대만에서는 식물명을 日本前胡라고 하여 두 국가 모두 갯기름나물을 ‘前胡’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고¹⁹⁻²¹⁾, 濱海前胡는 清熱止咳, 利尿解毒의 효능으로 肺熱咳嗽, 濕熱淋痛, 瘡癰紅腫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¹⁹⁾, 일부 문헌에서는 濱海前胡가 白花前胡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²²⁾. 前胡는 白花前胡 *P. praeruptorum* Dunn 또는 바다나물 *Angelica decursiva* (Miq.) Franch. et Sav. (산형과Apiaceae)의 뿌리로¹⁾, 祛痰降氣, 宣散風熱하는 효능으로 風熱咳嗽痰多, 痰熱喘滿, 咯痰黃稠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데¹³⁾, 肺熱咳嗽를 치료하는 濱海前胡의 효능과 일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中華本草》에서 濱海前胡의 異名을 防葵로 기재하였으나, 이를 고증하는 내용에서는 “일본학자가 濱海前胡를 防葵로 오인하였고, 이 내용이 다시 중국문헌에 많이 인용되었으나, 《本草圖經》의 설명으로 미루어 볼 때 防葵는 산형과 식물과 유사하나 濱海前胡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⁹⁾.

일본에서는 갯기름나물의 식물명을 ボタンボウフウ(牡丹防風; Botan-bouhu)으로 하고, 약재명은 長命草로 사용하고 있으나 한의학적 효능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23,24)}. 「국가표준식물목록」에서 갯기름나물의 비추천명 중 ‘목단방풍’이 수록되어 있고, 갯기름나물의 일본명은 일본의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ボタンボウフウ로 기재되어 있는데²⁵⁾, 우리나라에서 갯기름나물의 별칭 중에 ‘방풍’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갯기름나물에 植防風, 목단방풍, 방풍나물 등과 같이 ‘방풍’과 관련된 다양한 이름이 부여되어 한약재 防風과 혼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갯기름나물에 ‘방풍’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연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植防風이라는 명칭의 유래 또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갯기름나물의 異名 또는 약재명에 牡丹防風, 植防風 등 ‘防風’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시기와 이유에 대해 한국, 중국, 일본의 문헌을 고증하는 방식을 통해 연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防風의 연원에 대한 고문헌 및 현대 문헌 조사를 통해 防風의 기원을 정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파생된 정보를 이용하여 갯기름나물 약재명의 유래를 추정하였다.

II. 연구방법

防風과 植防風의 연원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에서 발간된 아래의 서적을 검색하였다.

1) 중국

- 唐 이전 : 《神農本草經》²⁶⁾, 《本草經集註》²⁷⁾
- 唐~宋代 : 《新修本草(659년)》²⁸⁾, 《外臺秘要(752년)》²⁹⁾, 《經史證類大觀本草(1108년)》³⁰⁾,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1249년)》³¹⁾

- 明代: 《救荒本草(1406년)》³²⁾, 《普濟方(1406년)》³³⁾, 《本草彙精要(1505년)》³⁴⁾, 《本草蒙筌(1525년)》³⁵⁾, 《本草綱目(1596년)》³⁶⁾, 《三才圖會(1609년)》³⁷⁾, 《本草原始(1612년)》³⁸⁾, 《野菜博錄(1622년)》³⁹⁾
- 清代: 《本草匯箋(1666년)》⁴⁰⁾, 《本草崇原(1674년)》⁴¹⁾, 《本草易讀》⁴²⁾, 《植物名實圖考(1848년)》⁴³⁾
- 근대 이후: 《中藥志 第一版(1959년)》⁴⁴⁾, 《中藥志 第二版(1982년)》⁴⁵⁾

2) 한국

- 朝鮮: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1541년)》⁴⁶⁾, 《諺解胎產集要(1608년)》⁴⁷⁾, 《東醫寶鑑(1613년)》⁴⁸⁾, 《物名考(1820년경)》⁴⁹⁾, 《證脈方藥合編(1887년)》⁵⁰⁾
- 일제강점기: 《單方秘要經驗新編(1913년)》⁵¹⁾, 《朝鮮植物鄉名集(1937년)》⁵²⁾
- 근대 이후: 《朝鮮植物名集(1949년)》⁵³⁾, 《한국식물도감(1956년)》⁵⁴⁾, 《現代 本草學(1972년)》⁵⁵⁾, 《韓國資源植物總覽(1974년)》⁵⁶⁾, 《標準 本草學(1975년)》⁵⁷⁾, 《新版 藥草植物栽培(1976년)》⁵⁸⁾, 《現代 生藥學 改訂版(1983년)》⁵⁹⁾, 《大韓植物圖鑑(초판 1980년; 3판 1985년)》⁶⁰⁾, 《圖解 鄉藥(生藥)大事典(藥物篇)(초판 1990년; 중판 1998년)》⁶¹⁾

3) 일본

- 平安時代: 《本草和名(918년경)》⁶²⁾, 《倭名類聚抄(931년 - 938년경)》⁶³⁾
- 江戸時代: 《本朝食鑑(1697년)》⁶⁴⁾, 《炮炙全書(1702년)》⁶⁵⁾, 《大和本草(1709년)》⁶⁶⁾, 《倭漢三才圖會(1712년)》⁶⁷⁾, 《物品識名(1809년)》⁶⁸⁾, 《重訂本草綱目啓蒙(1847년)》⁶⁹⁾
- 明治時代: 《箋注倭名類聚抄(1883년)》⁷⁰⁾, 《Flora Koreana(1909년)》⁷¹⁾
- 大正時代: 《朝鮮植物名彙(1922년)》⁷²⁾

그 밖의 자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 한국학술정보(kiss.kstudy.com), Pubmed(www.ncbi.nlm.nih.gov/pubmed), 구글학술검색(scholar.google.co.kr), 国立情報学研究所論文情報(ci.nii.ac.jp), 中國知識基礎設施工程(www.cnki.net) 등의 학술검색 사이트에서 '防風, 植防風, 濱海前胡, 방풍, 갯기름나물, *Saposhnikovia divaricata*, *Peucedanum japonicum*' 등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防風의 기원

현재 대한민국약전¹¹⁾, 中華人民共和國藥典⁷³⁾, 日本藥局方⁷⁴⁾ 등 한국, 중국, 일본의 공정서에서 모두 防風의 기원식물을 방풍 *Saposhnikovia divaricata*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防風의

기원식물에 대한 국가 간 차이는 없다. 「국가표준식물목록」과 「Flora of China」에서 각각 '방풍', '防風'을 식물명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학명은 Flora URSS(Flora Unionis Rerumpublicarum Sovieticarum Socialisticarum, 17: 54, 1951.)에 기재된 *S. divaricata*로 제시하였다^{75,76)}. Flora URSS의 영문번역본인 Flora of the U.S.S.R에서도 *S. divaricata*로 기재된 학명을 확인할 수 있고, 함께 수록된 삽화에서도 「국가표준식물목록」과 「Flora of China」에서 제시된 *S. divaricata*의 식물특징인 2회 또는 3회 깃모양겹잎, 가장 끝의 잔잎은 끝부분이 3개로 갈라짐, 흰색 꽃이 달린 겹우산모양꽃차례 등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⁷⁷⁾ (Figure 1A). 「World Flora Online」에서도 *S. divaricata*를 인정명(accepted name)으로 제시하였고, *Siler divaricatum* Benth. & Hook.f., *Ledebouriella seseloides* H. Wolff 등을 이명(synonym)으로 표기하였다⁷⁸⁾. *Siler divaricatum*은 대한약전 3개정(1976년)부터 防風의 기원식물 학명으로 사용되었고⁷⁹⁾, 이후 대한약전 4개정(1982년), 5개정(1987년), 6개정(1992년)에서는 *L. seseloides*가 기원식물의 학명의 사용되었으며⁸⁰⁻⁸²⁾, 대한약전 7개정(1997년)부터 현재와 마찬가지로 *Saposhnikovia divaricata*가 기원식물의 학명으로 사용되었다⁸³⁾.

防風으로 사용된 기원식물 및 약재의 형태는 南北朝梁代 《本草經集註》에서 '질은 충실하고 기름지고 윤택하며, 뿌리의 위쪽마디는 단단하여 지렁이 머리와 같은 것이 좋다(唯實而脂潤 頭節堅如蚯蚓頭者爲好)'라고 하여 약재의 형태를 서술하였고²⁷⁾, 이후 唐代 《新修本草》에서 '있는 牡蒿附子の 지상부 등과 같다(葉似牡蒿附子苗等)'라고 기술하였다²⁸⁾. 宋代 《經史證類大觀本草》와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에 인용된 《本草圖經》에서 '뿌리는 土黃色이고 蜀葵 뿌리와 비슷한 종류이다. 줄기와 있는 모두 靑綠色인데, 줄기는 색이 짙고 있는 색이 엷다. 靑蒿과 비슷하지만 짧고 작다. ... 5월에 가늘고 흰색 꽃이 피는데, 모두 가운데로 모여서 큰 송이를 이루어 마치 薔蘿의 꽃과 같다. 열매는 胡荽와 같고 크다(根土黃色 與蜀葵根相類 莖葉俱靑綠色 莖深而葉淡 似靑蒿而短小 ... 五月開細白花 中心攢聚 作大房 似薔蘿花 實似胡荽而大)'라고 防風으로 사용되는 기원식물의 형태와 약재의 형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30,31)}. 그리고 같은 책에서 '關中(현 中國 陝西省 中部)에서 자라는 것은 3월과 6월에 채취하는데, 가볍고 질은 비어서 齊州(현 中國 山東省 濟南市)에서 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關中生者 三月六月採 然輕虛不及齊州者良)', '石防風은 河中府(현 中國 山西省 永濟市)에서 나는데 뿌리는 蒿根과 비슷하고 누런색이며, 잎은 푸른색, 꽃은 흰색으로 5월에 핀다(石防風 出河中府 根如蒿根而黃 葉靑 花白 五月開花)', 宋州(현 中國 河南省 商丘市)와 亳州(현 中國 安徽省 亳州市) 사이 및 江東(현 中國 安徽省 長江以南, 江蘇省 長江以南, 江西省 일부)에서 한 種의 防風이 나는데, 지상부는 이른 봄에 나고, 어릴 때는 紅紫色으로 그 지역 사람들은 채소로 먹고 맛이 매우 좋다(宋亳間及江東出一種防風 其苗初春便生 嫩時紅紫色 彼人以作菜茹 味甚佳)'라고 하였다^{30,31)}. 이를 통해 지역에 따라 齊州防風, 同州防風, 解州防風, 河中府石防風 등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防風의 기원식물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Figur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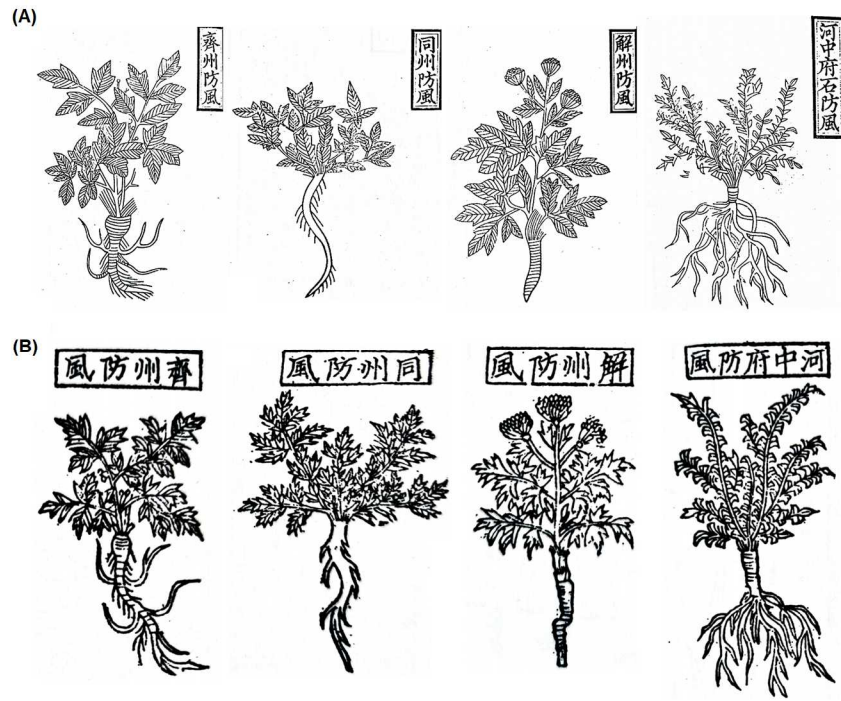


Figure 2. Illustrations of Bang-pung from various regions described in *Jingshizhengleidaguanbencao* (經史證類大觀本草, A) and *Chongxiuzhenghejingshizhengleibeiyongbencao*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B), published in Song dynasty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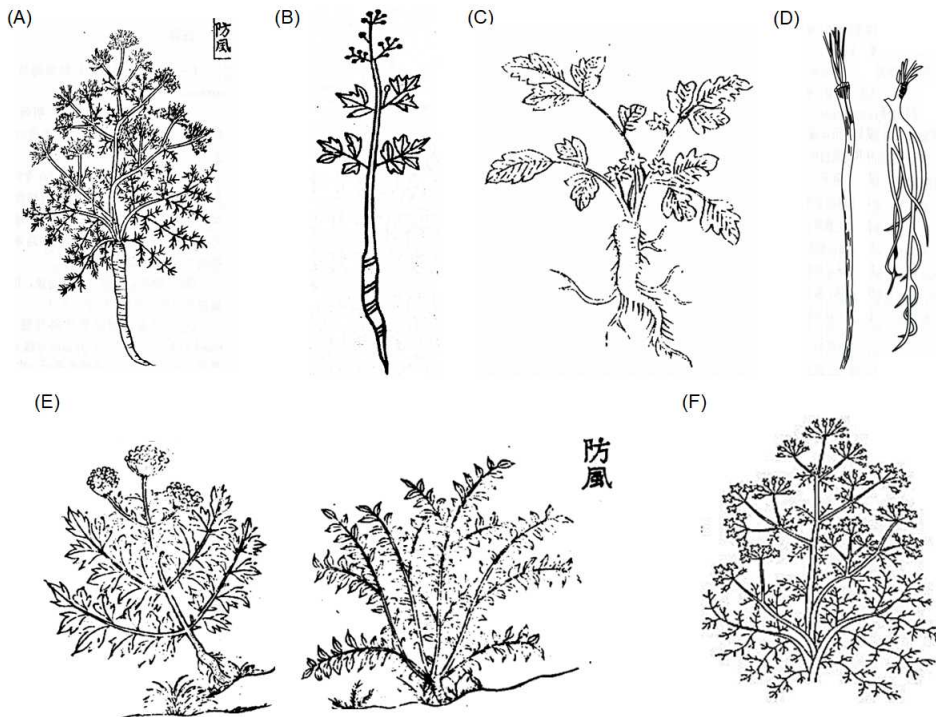


Figure 3. Illustrations of Bang-pung described in *Jiuhuangbencao* (救荒本草, A), *Bencaomengquan* (本草蒙筌, B), *Bencaogangmu* (本草綱目, C), *Bencaoyuanshi* (本草原始, D; left: 防風, right: 山防風), *Sancaituhui* (三才圖會, E), and *Yecaibolu* (野菜博錄, F), published in Ming dynasty (China).

明代《救荒本草》에도 ‘뿌리는 土黃色이고 蜀葵 뿌리와 비슷한 종류이며 약간 가늘고 짧다. ... 잎은 靑蒿의 잎과 비슷하고 넓고 크다. 또한 米蒿의 잎과도 비슷하나 성기다. 줄기는 茴香과 비슷하다 ... (根土黃色 與蜀葵根相類 稍細短 莖葉俱靑綠

色 莖深而葉淡 葉似靑蒿葉而闊大 又似米蒿葉而稀疏 莖似茴香開細白花 結實似胡荽子而大’라고 하여 《本草圖經》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잎의 모양과 줄기의 형태를 추가하여 설명하였다³²⁾ (Figure 3A). 《本草品彙精要》에서는 《本草經集註》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根頭節堅如蚯蚓頭 實而脂潤者爲好), 여기에 더하여 ‘沙參과 유사하면서 가늘고 길다(類沙參而細長)’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³⁴⁾. 《本草蒙筌》에서는 ‘沙苑河南에 속함에서 자란 것은 뿌리가 蜀葵와 유사하다(種生沙苑河南 根類蜀葵)’라고 하여 지역을 특정하였다³⁵⁾(Figure 3B). 《本草綱目》에서는 ‘江淮(현 中國 江蘇省과 安徽省 中部 지역)에서 나는 것은 石防風인데 산의 돌 틈에서 자란다. 2월에 어린 지상부를 채취하여 채소로 먹는데辛甘하면서 향이 있고 珊瑚菜라고 부른다. 그 뿌리는 거칠고 모양이 예쁘지 않다(所產多是石防風 生於山石之間 二月採嫩苗作菜 辛甘而香 呼爲珊瑚菜 其根粗醜)’라고 하여 石防風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나, 삽화에는 防風을 묘사하였다³⁶⁾(Figure 3C). 《本草原始》에서도 《本草圖經》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서술되었으나 ‘향기가 芸蒿와 비슷하다(莖葉俱靑綠色 莖深而葉淡 似青蒿而短小 五月開細白花 中心攢聚作大房 似茴香花 其氣如芸蒿 實似胡葵子而大 根土黃色 與蜀葵根相類)’는 내용이 추가되었다³⁸⁾. 石防風에 대한 설명은 《本草圖經》과 《本草綱目》의 내용을 정리하여 ‘石防風生於山石間 根如蒿根而黃 粗醜多歧’로 서술하였고, ‘요즘 江淮의 모든 산에서 자라는 것은 山防風이라고 부른다(今江淮河中諸山有之 俗呼山防風)’라고 하여 山防風이라는 명칭을 추가하였다³⁸⁾. 약재를 설명하는 삽화에서는 ‘防風은 겉껍질은 담황색, 내부 조직에는 心이 있고, 색은 진하며 질은 단단하고 윤기가 있다(防風 皮淡黃色 肉有心 色深堅實溫潤)’라고 서술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山防風의 형태도 삽화로 묘사하였다³⁸⁾(Figure 3D). 전문본초서적은 아니지만 《三才圖會》에는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의 解州防風, 河中府石防風과 비슷한 삽화가 묘사되었고³⁷⁾(Figure 3E), 《野菜博錄》에는 《救荒本草》와 유사한 식물설명과 삽화가 기록되었다³⁹⁾(Figure 3F).

清代 《本草崇原》에서 ‘이른 봄에 어린 싹이 나는데 紅紫色이고, 3월에 줄기와 잎이 모두 푸른색이 되며, 5월에 가늘고 흰색 꽃이 핀다. 6월에 검은색 열매를 맺는다(春初發嫩芽 紅紫色 三月莖葉俱靑 五月開細白花 六月結實黑色)’라고 하였고⁴¹⁾, 《本草易讀》에서는 위 서적들의 내용과 동일하게 식물형태를 서술하면서 ‘여러 종이 있으나 뿌리가 누르고 윤기가 있는 것이 좋다. 흰색은 쓸 수 없다(莖葉俱靑綠 似青蒿而短 五月開細白花 似蒔蘿花 有數種 以根黃而潤者爲佳 白者不堪用)’이라고 기재하였다⁴²⁾. 《本草匯箋》에서는 기원식물이나 약재에 대한 설명은 없고, 약용부위 삽화만 묘사하였다⁴⁰⁾(Figure 4A). 《植物名實圖考》에서는 ‘《救荒本草》의 그림을 좇아 그렸고, 山西의 산과 언덕 사이에 많이 있다. 《救荒本草》의 그림과 동일하나 잎 끝부분이 더 두텁다(今從救荒本草圖之 山西山阜間多有 與救荒圖同而葉稍肥)’라고 하여 《救荒本草》의 삽화와 유사한 형태로 묘사하였다⁴³⁾(Figure 4B).

이후 中藥誌 제1판(1959년)에서 防風의 기원식물 학명을 *Ledebouriella seseloides* Wolff로 기재하였고⁴⁴⁾, 제2판(1982년)에서 현재 防風의 학명과 같은 *Saposhnikovia divaricata* (Turcz.) Shchischk.로 기재하면서 이에 대한 異名으로 *Siler divaricatum* Benth. & Hook. f., *Ledebouriella seseloides* auct. non Wolff, *L. divaricata* (Turcz.) Hiroe 등을 제시하였다. 제2판에 수록된 삽화는 Flora of the U.S.S.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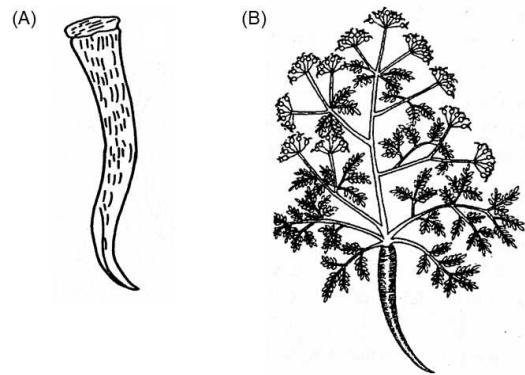


Figure 4. Illustrations of Bang-pung described in Bencaohuizhan (本草匯箋, A) and Zhiwumingshitukao (植物名實圖考, B), published in Cheong dynasty (China).

에 수록된 삽화와 유사하게 묘사되었다⁴⁵⁾.

朝鮮의 《東醫寶鑑》에도 ‘頭節堅如蚯蚓頭者爲好’라고 하여 《本草經集註》과 동일한 약재 형태 내용이 기록되었고⁴⁸⁾, 日本의 《炮炙全書》에는 ‘시장에서 파는 것 중에 筆防風이 있는데, 약에 넣는데 사용하기 마땅하다(市賣有筆防風 入藥宜用之)’라고 하여 ‘筆防風’의 이름에서 防風 약재의 根頭部에서 보이는 葉鞘의 殘基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⁶⁵⁾.

정리하면, 防風의 기원식물 및 약재에 대한 서술은 일부 식물형태 묘사에 차이는 있지만 《本草經集註》와 《本草圖經》에서 제시된 설명이 明代를 거쳐 清代 문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헌에 제시된 삽화도 표현방식에 차이가 보이지만, 식물 및 약재 모두 거의 유사한 형태의 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식물형태에 대한 묘사가 근대로 이어지면서 *Saposhnikovia divaricata*를 防風의 기원식물로 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공정서에 수록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 밖에 지역에 따라 石防風, 山防風 등으로 불린 식물이 있었고, 이들이 防風의 한 종류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갯기름나물의 약용 유래

1) 한국에서의 防風 기원식물 탐색을 위한 고전문헌 조사

植防風은 유일하게 한국의 공정서인 「대한약전의외약(생약)규격집」에만 갯기름나물 *P. japonicum* Thunberg의 뿌리로 수록되어 있는데 반해, 同屬의 白花前胡 *P. praeruptorum*는 한약재 前胡로 사용되고 있고, 갯기름나물 또한 중국에서 濱海前胡라는 명칭으로 역시 前胡의 일종으로 취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갯기름나물에 植防風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고, 「국가표준식물목록」에는 갯기름나물의 비추천명 중 ‘목단방풍’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어느 시점부터 우리나라에서 갯기름나물에 ‘방풍’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08년에 출간된 《諺解胎産集要》에서 羚羊角湯, 竹葉湯, 七珍散 등의 처방에 防風이 구성약재로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諺解가 부기되어 있다⁴⁷⁾.

“羚羊角湯 治子癩 羚羊角一錢 獨活 酸棗仁 五加皮各八分 薏苡

パウフウ'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약재명으로 '防葵, 房苑'이 병기되어 있다. 다른 이름으로 'Botan-ninjin ボタンニンジン'이 기재되어 있다. 'Siler divaricatum, Benth, et Hooker'의 일본명은 'Bōfuパウフウ'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약재명으로 '防風, 白毛草, 방풍(Pangpung)'이 기재되어 있다⁷²⁾. 위 두 서적의 저자가 모두 일본인이라는 점에서 두 식물의 명칭이 모두 일본명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防風의 기원식물인 *S. divaricatum*은 약재명과 동일하게 'パウフウ_{바우후우}(防風, Bofu)'로 불렸던 것에 반해, *P. japonicum*의 경우 약재명이 防葵, 房苑 등으로 기록되었으나, 기원식물명은 'ボタンパウフウ_{보탄바우후우}(牡丹防風, Botan-bofu)'로 기재되어 식물명에 '牡丹'과 '防風'이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1937년에 발간된 《朝鮮植物郷名集》에는 'Siler divaricatum Bentham et Hookerパウフウ 防風'로 기재된 아래에 'Bangpung 방풍'으로 국문명과 영문표기가 병기되어

있고,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 ボタンパウフウ'로 기재된 아래에 'Gaet-girum-namul 갯기름나물'으로 역시 국문명과 영문표기가 병기되어 있다⁵²⁾. 1949년에 발간된 《朝鮮植物名集》에도 'Siler divaricatum Bentham et Hooker'에는 '방풍(防風)パウフウ',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에는 '갯기름나물 ボタンパウフウ'로 기재되어 *P. japonicum*의 일본명인 'ボタンパウフウ'에 한글명인 '갯기름나물'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⁵³⁾. 즉, 'Peucedanum japonicum = 갯기름나물 = ボタンパウフウ(牡丹防風)'로 이어지는 식물명이 정립되었다(Table 1). 1956년에 발간된 《한국식물도감》에도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의 식물명으로 '갯기름나물'이 제시되었고 '어린 잎은 식용으로 쓰고, 뿌리는 인삼 대용으로 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⁵⁴⁾, *P. japonicum* Thunberg의 국명은 '갯기름나물'로 정리되었고, 그 자체의 효능보다는 다른 약재(예, 인삼)의 대체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Table 1. Plant materials used for experiments.

서적(년도)	Siler divaricatum		Peucedanum japonicum	
	국명 (영문명)	일본명 (영문명/한자명)	국명 (영문명)	일본명 (영문명/한자명)
Flora Koreana(1909) ⁷¹⁾	- (-)	- (Bōfu/-)	- (-)	- (Botan-ninjin, Botan-bōfu/-)
朝鮮植物名彙(1922) ⁷²⁾	방풍 (-)	パウフウ (Bōfu/防風, 白毛草)	- (-)	ボタンパウフウ (Botan-bōfu/防葵, 房苑) ボタンニンジン (Botan-ninjin/-)
朝鮮植物郷名集(1937) ⁵²⁾	방풍 (Bangpung)	パウフウ (-/防風)	갯기름나물 (Gaet-girum-namul)	ボタンパウフウ (-/-)
朝鮮植物名集(1949) ⁵³⁾	방풍 (-)	パウフウ (-/防風)	갯기름나물 (-)	ボタンパウフウ (-/-)

'-', 해당내용 없음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본초학 및 약용식물 관련 서적에서 *P. japonicum*의 식물명 또는 약재명이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특히 '防風'이 포함된 약재명 또는 식물명이 등장하였다. 《現代本草學(1972년)》에서는 갯기름나물 *Peucedanus japonicum*의 약재명을 '山防風, 植防風'으로 기재하였고⁵⁵⁾, 김⁹²⁾의 연구에서는 갯기름나물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의 뿌리를 '牡丹防風'이라 부르고 防風의 代用으로 感氣, 頭痛發汗, 祛痰에 사용하고, 일본에서는 人蔘을 代用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標準 本草學(1975년)》에서는 약재명 '갯방풍(防風, 濱防風)'의 대용품으로 *P. japonicum*을 제시하면서 식물명을 '목단방풍'으로 기재하였다⁵⁷⁾. 《新版 藥草植物栽培(1976년)》에서는 '山防風 또는 石防風'의 기원식물로 갯기름나물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을 제시하면서 기원식물의 다른 이름으로 '牡丹葉防風'을 기재하였다⁵⁸⁾. 남 등⁹³⁾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에 防風, 眞防風, 元防風, 海防風, 植防風, 山防風 등 기원이 불확실한 다양한 防風類 약재가 시판되고

있는데, 시중의 植防風은 갯기름나물 *P. japonicum*과 기원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現代 生藥學 改訂版(1983년)》에서는 털기름나물 *Seseli coreana* Kitagawa이 시장에서 '植防風'으로 유통된다고 하였고⁵⁹⁾, 《大韓植物圖鑑(초판 1980년; 3판 1985년)》에서는 갯기름나물 *P. japonicum*을 방풍의 대용품 중 하나로 기재하였으며⁶⁰⁾, 《圖解 鄉藥(生藥)大事典(藥物篇)(초판 1990년; 중판 1998년)》에서는 *P. japonicum*의 식물명으로 갯기름나물 이외에 '植防風, 牧防風, 牡防風'을 제시하였다⁶¹⁾. 이와는 별도로 《韓國資源植物總覽(1974년)》에서는 *P. japonicum*의 식물명을 '갯기름 ボタンボウフウ 防葵'로 제시하였다⁵⁶⁾(Table 2).

위 문헌들과는 달리 植防風의 기원식물이 '갯防風(濱防風) *Phelloterus littoralis* BENTHAM'으로 기재하거나⁹⁴⁾, '털기름나물 *Seseli coreana* Kitagawa'로 기재하는 경우⁵⁹⁾도 있어서 植防風의 기원식물에도 다소 혼란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2. Bibliographic comparison of herbal and botanical names of *Peucedanum japonicum*

서적(년도)	약재명	식물명	약용
現代 本草學(1972) ⁵⁵⁾	山防風, 植防風	갯기름나물	-
김(1972) ⁹²⁾	-	갯기름나물, 牡丹防風	防風代用(한국) 人蔘代用(일본)
韓國資源植物總覽(1974) ⁵⁶⁾	-	갯기름, ボタンボウフウ, 防葵	-
標準 本草學(1975) ⁵⁷⁾	-	목단방풍	갯방풍(防風 濱防風)代用
新版 藥草植物栽培(1976) ⁵⁸⁾	山防風, 石防風	갯기름나물, 牡丹葉防風	-
大韓植物圖鑑(1985) ⁶⁰⁾	-	갯기름나물	防風代用
圖解鄉藥(生藥)大事典(藥物篇)(1998) ⁶¹⁾	-	갯기름나물, 植防風, 牧防風, 牡防風	-

‘-’. 해당내용 없음

다시 말하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P. japonicum*의 국명이 ‘갯기름나물’로 정립되었고 일본명인 ‘ボタンボウフウ(牡丹防風)’가 병기되었으나, 해방 이후에는 국명인 ‘갯기름나물’이 사용되었고 약용에 대한 정보는 代用이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1960년대 자료는 찾기 어려웠으나, 이후 1970년대부터 본초학 또는 약용식물 서적, 그리고 논문 등에서 갯기름나물을 주로 防風의 대용품으로 사용하면서 ‘防風’이 포함된 약재명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에 사용되었던 ‘목단방풍, 牡丹防風’이 다시 등장하기도 하였고, ‘山防風, 石防風, 植防風’ 등 다양한 ‘防風’류의 명칭이 부여되기도 하였다. 그 중 시중의 植防風이 갯기름나물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갯기름나물=植防風’으로 인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대한약전의외약(생약)규격집 초판에 갯기름나물(*P. japonicum* Thunberg)이 植防風으로 등록되면서 제2판, 제3판을 지나 현재까지 植防風은 규격한 약재로 사용되고 있다.⁹⁵⁻⁹⁷⁾

하지만 갯기름나물에 부여된 다양한 ‘防風’이라는 명칭 중 ‘山防風’, ‘石防風’ 등은 《本草圖經》과 《本草綱目》 등 문헌에 등장하여 연원을 추정할 수 있지만, 그 외 ‘牡丹防風’, 그리고 특히 ‘植防風’이라는 명칭은 중국의 고문헌이나 국내 문헌으로는 그 연원을 추정하기 어려웠다. 또한 ‘防風’이라는 명칭이 갯기름나물에 부여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이와는 별도로 《朝鮮植物名彙》와 《韓國資源植物總覽》에서 갯기름나물의 다른 명칭으로 등장했던 ‘防葵’라는 약재는 1820년경 발간된 《物名考》에 ‘防葵 葉似葵 每莖三葉 一本十數莖 中發一幹 莖端開花 如蔥花景天輩而白 六月即結實 根似防風 而有毒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뒤에서 언급할 宋代《本草圖經》의 서술내용과 거의 동일하다.⁴⁹⁾

3) 일본에서의 防風과 갯기름나물의 연원 탐색을 위한 고전문헌 조사

918년에 발간된 《本草和名》에는 ‘銅芸, 巨草, 百枝, 屏風, 蘭根, 百蜚, 違草, 苧芸, 同雲, 百種, 夏友’ 등 防風의 다양한 異名이 기록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당시 일본에서 불렸던 명칭(和名)인 ‘波末須加奈, 波末爾加奈’ 등이 기록되어 있다.⁶²⁾

931년~938년 사이에 발간된 것으로 알려진 《倭名類聚抄》에는 ‘苑云防風, 屏風’ 등 防風의 異名과 ‘波萬須加奈, 波萬仁加奈’ 등의 和名이 기록되어 있다.⁶³⁾

1692년에 발간된 《本朝食鑑》에는 防風의 和名으로 ‘波萬須加奈, 波萬仁加奈’가 기록되어 있고, ‘屏風(風을 물리친다)’으로 이를 해석하고 있다. 단, 기원식물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어린 지상부와 잎이 미나리와 비슷한 종류이고 잎은 엷은 녹색이다. 하나의 줄기 끝에 2~3개의 잎이 있다. 그 줄기는 처음에는 紫赤色이고 서로 둘러싸고 있는데 생강의 어린 지상부와 비슷한 종류이다. (줄기가) 점점 길어지면서 잎은 둥글고 두터워지고 짙은 푸른색이며 툇나가 있고, 줄기 또한 짙은 녹색이다. 뿌리의 윗부분은 흰색이고, 뿌리는 황색이다(苗葉略類芹而葉淺綠 一莖頭有二三葉 其莖初紫赤色相抱 類生薑之苗 稍長而葉圓厚深青有鋸齒 莖亦濃綠 根上白 根黃色)’라고 하여 《本草圖經》과 《本草綱目》 등에 기록된 식물 형태 설명과는 약간 차이를 보였고, ‘현재 채소로 사용하는 것은 濱防風이고 집안 뜰의 모래 중에 심는 것 또한 좋다. 산의 돌 틈에서 나는 것은 약으로 쓸 수 있으나 채소로 사용할 수는 없다(今作蔬者濱防風也, 家園砂中栽者亦好. 其山石間生者入藥用, 不堪作蔬也)’라고 하여 ‘濱防風’이라는 防風의 종류가 기록되었다.⁶⁴⁾

1702년에 발간된 《炮炙全書》에는 ‘시중에 筆防風이 있는데 약으로 넣어 사용하기에 마땅하다. 또한 削防風, 濱防風이 있는데 모두 (防風으로) 옳은 것이 아니다. 진짜 防風은 잎이 약간 水斬과 비슷하여 앞의 두 種과 더불어 크게 구별이 된다. 削防風은 즉 防葵의 뿌리이다. 濱防風도 역시 防葵의 종류이다. (市中有筆防風入藥宜用之. 又有削防風濱防風俱非是. 眞防風 葉微似水斬 與此二種大別也. 削防風即防葵根也. 濱防風亦防葵類)’라고 하여⁶⁵⁾, 防風 기원 식물에 대해서는 ‘筆防風’이라고 하여 根頭部에 葉鞘의 殘基가 특징적인 防風의 뿌리를 묘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시중에서 削防風, 濱防風 등으로 유통되는 防風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防葵’ 또는 그의 종류라고 하여, ‘防葵’라는 약재를 등장시켰다.

1709년에 발간된 《大和本草》에는 ‘倭防風이라고 불리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筆防風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다. ... 削防風은 잎이 牡丹과 비슷하고, 색은 엷은 녹색으로 牡丹人蔘으로도 불리는데 그 뿌리가 크기 때문에 깎아서 판매한다. 또한 木防風은 어리고

작을 때는 채소로 먹는데 줄기는 푸르고 향이 있는 것으로 이는防葵이지防風은 아니다. 사람들이人參으로 파는데 매우 잘못된 것이다.(倭防風ト稱スル者數品アリ 其中二筆防風ト云ク用ユヘレ其餘不可用 … 削防風ハ葉似牡丹色淺綠俗牡丹人參ト云 其根大故削之而售之. 又木防風嫩小時爲菜莖青有香者是防葵也非防風 世俗以爲人參售之甚非也)라고 하였다⁶⁶⁾. 이를 통해 削防風으로 불리는 약재의 기원식물이 牡丹과 유사한 점으로 인해 ‘牡丹人參’으로 유통되고 있고, 별도로 防葵라는 약재가 시중에서 木防風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防風의 기원식물은 아니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炮炙全書》에서와 마찬가지로 削防風, 防葵를 언급하였으나, 《炮炙全書》에서 ‘防葵根=削防風’으로 정리했던 것과는 달리 《大和本草》에서는 ‘防葵=木防風≠削防風(=牡丹人參)’으로 정리하였다.

1713년에 발간된 《倭漢三才圖會》에서도 《本朝食鑑》에서와 유사하게 防風의 和名인 ‘波萬須加’, ‘波萬仁加奈’와 기원식물 형태를 기재하였고, 아울러 약재의 일본명인 ‘パンフロン^{판후론}’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炮炙全書》에서와 마찬가지로 削防風, 濱防風이라는 명칭을 등장시켰다. 이에 더하여 ‘削防風, 濱防風은 중국(唐)의 東防風, 石防風 2가지 種과 같다(有削防風濱防風二種 猶唐之東防風石防風之二種)’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삽화를 추가하였다⁶⁷⁾. 東防風과 石防風의 약재 그림은 각각 《本草原始》의 防風, 山防風의 삽화와 유사하였고(Figure 5A), 防風의 식물형태 그림은 《本草綱目》의 삽화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Figure 5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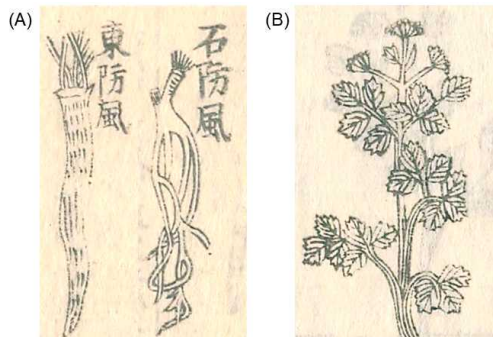


Figure 5. Illustrations of medicinal parts of Dong-bang-pung and Seok-bang-pung (A), and Bang-pung described in Wakansanzue (倭漢三才圖會), published in Edo era (Japan).

1809년 《物品識名》에서 防風을 ‘ボウフウ^{보우후우}’라는 명칭으로 표기하면서 이를 通名이라고 기재하였다⁶⁸⁾.

1847년에 발간된 《重訂本草綱目啓蒙》에는 ‘ハマオホネ(하마오호네) 延喜式’, ‘ハマニガナ(하마니가나) 和名抄’, ‘ハマスカナ(하마스카나) 同上’ 등 防風의 和名과 ‘曲方氏^{곡방씨} 綴耕錄’, ‘屏風菜^{병풍채} 村家方’, ‘山花茶^{산花茶} 鎮江府志’, ‘防^방 萬^만 綱^강 必^필 愈’ 등의 異名이 기록되어 있다. 본 서적에서도 筆防風이라고 불리는 防風을 진품으로 기록하였고, 異名으로 ‘伊吹防風’, ‘山人參’, ‘青葉防風’ 등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削^削 防^防 風(또는 깎아 쓰는 방풍)’의 異名으로 ‘五島防風’, ‘木防風’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防葵와 비슷한 모양이고 毒草 종류로 분류되며 防風은 아니다(又藥舖二削^削 防^防 風 一名五島防風木防風ト云アリ 是^是 卽^卽 防^防 葵^葵 ナリ 毒草類二本條アリ 亦防風ニ非

ズ)’라고 하면서 ‘牡丹人參’, ‘御免人參’ 등의 명칭도 기록하였다⁶⁹⁾. 그 밖에 ‘濱防風은 어린 잎은 식품으로 사용하고 八百屋防風, 伊勢防風 등으로 불리며 해안가에서 나는 것으로 이것은 채소의 종류이지 防風은 아니다.(濱防風アリ 春中菜店二嫩葉ヲ貨^貨リ食品トス 故ニ八百屋防風トモ云 又伊勢防風トモ云 海濱ニ自生ス … 是菜類ニシテ防風ニ非ズ)’라고 하였다⁶⁹⁾. 1883년의 《箋注倭名類聚抄》에서도 防風의 和名인 ‘波末須加奈’, ‘波萬爾賀那’와 ‘苑’, ‘屏風’ 등 다양한 異名을 제시하였고, 기원식물의 형태는 《新修本草》, 《本草圖經》 등의 설명을 인용하였다⁷⁰⁾.

근대 이전의 일본 문헌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筆防風이라는 명칭으로 유통되었던 것이 防風(일본명: ボウフウ)의 진품으로 인정되었고, 그 외 防風이라는 명칭으로 유통되었던 다양한 약재 중 削防風(=牡丹人參, 五島防風, 木防風), 濱防風 등이 있었으나 이들은 防風의 진품은 아니었다. 이 중 削防風을 防葵라는 약재와 동일한 것으로 기록한 문헌들이 많았고, 우리나라에서도 ‘防葵’라는 명칭이 갯기름나물과 동일선상에서 기록된 문헌이 있기 때문에 ‘防葵’의 연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重訂本草綱目啓蒙》에서 ‘村家方’이라는 서적에서 유래한 ‘屏風菜’라는 명칭을 ‘병풍나물’이라고 해석할 경우, 그리고 《箋注倭名類聚抄》에서 ‘屏風은 防風(風을 막는다)의 숨은 말(隱語)이다.(屏風者 防風隱語也)’라고 설명한 의미를 고려해볼 때^{69,70)}, 앞서 《東醫寶鑑》에 기록된 ‘병풍나물’의 의미를 추정하는 내용이 보다 설득력을 얻는다.

4) 防葵의 연원 탐색

防葵는 《神農本草經》에 ‘味辛寒. 主疝瘕腸泄 膀胱熱結 瀉不下 咳逆 溫瘧 癰癩 驚邪狂走 久服堅骨髓益氣輕身’으로 기재된 이후²⁶⁾, 唐代 《新修本草》에서 ‘그 뿌리와 잎은 葵(아욱, 접시꽃 등으로 해석 가능)의 꽃과 열매, 뿌리와 비슷하고 향과 맛은 防風과 비슷하여 防葵라고 불린다(其根葉似葵花子根 香味似防風 故名防葵)’라고 하여 防葵의 식물형태와 명명 이유를 설명하였다²⁸⁾. 이후 宋代 《本草圖經》에서 ‘그 잎은 葵와 비슷하고 매 줄기마다 3개의 잎이 있는데, 하나의 뿌리에서 십수 개의 줄기가 난다. 그 가운데서 꽃대가 하나 나와 그 끝에서 꽃이 피는데 파꽃, 景天 등과 비슷하고 흰색이다. 뿌리는 防風과 비슷하고 향과 맛 또한 그러하다(其葉似葵 每莖三葉 一本十數莖 中發一稈 其端開花 如蔥花·景天輩而色白 根似防風 香味亦如之)’라고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원식물을 묘사하였다^{30,31)}(Figure 6A and 6B). 이후 明代 《本草品彙精要》에서 ‘質이 防風과 유사하다(類防風)’라고 기록하였고³⁴⁾, 《本草蒙筌》에서도 《本草圖經》과 유사하게 ‘一本三莖 一莖三葉 中抽大幹 花開幹端色白如蔥 幹開花 葉類葵 葉色青 根若防風香竄 故因名防葵也’으로 기재하면서, 《證類本草》에서와 유사한 식물형태를 묘사하였다³⁵⁾(Figure 6C). 이후 《本草綱目》에는 《新修本草》의 식물설명이 그대로 인용되었으나 삽화는 앞의 서적과는 다르게 산형화서(傘形花序, umbel)가 개화하지 않은 듯한 형태로 묘사되었다³⁶⁾(Figure 6D). 《三才圖會》에도 《本草圖經》과 동일하게 식물 형태를 설명하였고, 삽화 또한 《證類本草》 및 《本草蒙筌》과 유사하게 묘사되었다³⁷⁾(Figure 6E). 이후 清代 《植物名實圖考》에서도 《本草圖經》의 식물묘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삽화 또한 앞의 서적들과 유사한 산형과 식물의 형태로 묘사되었다⁴³⁾(Figure 6F).

752년에 발간된 《外臺秘要》에서 『千金方』의 小兒狐疝을 치료하는 처방인 傷損生癩方을 인용하면서 처방 구성 중 ‘防風을 防葵로 사용하기도 한다(防風 一作防葵)’라고 하거나, 『經心錄』의 五噎丸을 인용하면서 처방 구성 중 ‘防葵를 一方에서는

防風으로 쓰기도 한다(防葵 一方用防風)’ 등으로 기록하였고²⁹⁾, 1406년 발간된 《普濟方》에서 역시 『千金方』의 人參丸을 인용하면서 처방 구성 중 ‘防風을 防葵로 사용하기도 한다(防風 一作防葵)’라고 기재하였다³³⁾. 이를 통해 防葵가 본연의 효능이 있지만 극히 일부 처방에서 防葵와 防風이 서로 代用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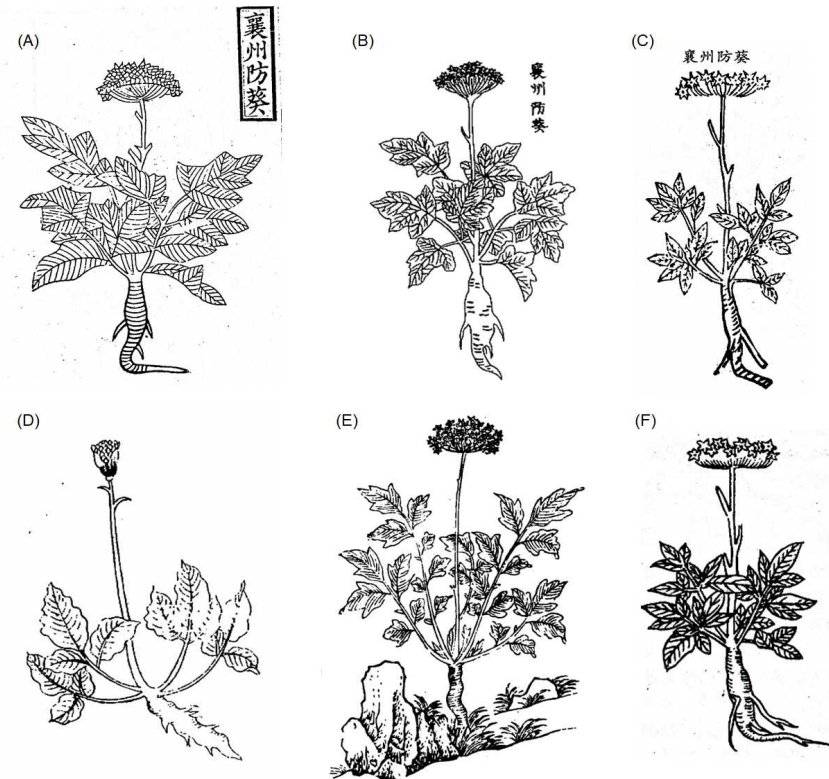


Figure 6. Illustrations of Bang-gyu described in Jingshizhengleidaguanbencao (經史證類大觀本草, A, Song dynasty), Shaoxingxiaodingjingshizhengleibei jibencao (紹興校定經史證類備急本草, B, Song dynasty), Bencaomengquan (本草蒙筌, C, Myeong dynasty), Bencaogangmu (本草綱目, D, Myeong dynasty), Sancaituhui (三才圖會, E, Myeong dynasty), and Zhiwumingshitukao (植物名實圖考, D, Cheong dynasty), published in China.

일본의 《本草和名》에는 ‘房葵’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葉似葵 味似防風 故名防葵’라고 하여 《新修本草》의 설명과 거의 동일한 명명 사유가 기재되었다. 그리고 ‘梨蓋, 房慈, 爵離, 農菓, 利茹, 方蓋, 紫蓋, 梁蓋, 房苑, 農莫, 和利, 方慈, 犁蓋’ 등의 이름과 함께 ‘末奈須比’라는 和名도 기재되어 있었다⁶²⁾. 《倭名類聚抄》부터 ‘防葵’로 수록되어 《本草和名》과 마찬가지로 《新修本草》에서와 같은 명명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和名으로 ‘夜末奈須比’가 기록되어 있었다⁶³⁾.

《炮炙全書》에는 防葵가 ‘요즘 사람들이 木防風을 防風으로 하여 사용한다고 얘기하는데 옳지 못하다(今人謂之木防風 用以爲防風 非是)’라고 하여 앞서 防風의 연원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마찬가지로 木防風은 防風이 아닌 防葵로 정의되었다⁶⁵⁾. 《大和本草》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削防風을 牡丹人參과 같은 것으로 보았고, 木防風을 防葵로 정의하였다⁶⁶⁾. 《倭漢三才圖會》에는 和名인 ‘夜末奈須比’와 아울러 약재의 일본명인 ‘パンクイ 판쿠이’를 기재하였고, 《本草圖經》과 동일한 식물형태 설명 및

《三才圖會》와 거의 동일한 삽화가 수록되어 있다⁶⁷⁾ (Figur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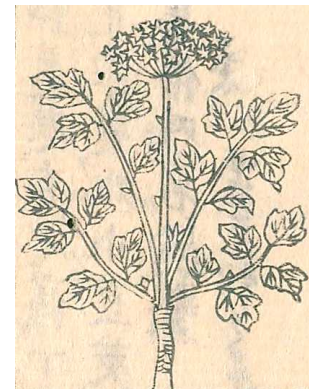


Figure 7. Illustration of Bang-gyu described in Wakansansai-zue (倭漢三才圖會) in Edo ear (Japan).

이후 《物品識名》에서 防葵를 ‘ボタンボウフウ’라는 명칭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한자로 ‘牡丹防風’로 표현되며, 異名으로 ‘五島ボウフウ’, 즉 ‘五島防風’을 수록하였다⁶⁸⁾. 《重訂本草綱目啓蒙》에서는 ‘야마나스비(和名紗)’, ‘보탄닌진’, ‘히라닌진’, ‘御赦免닌진’, ‘御免닌진’, ‘五島보우후’, ‘키보우후’, ‘케쯔리보우후’, ‘쿠히보우후(江州)’, ‘보탄보우후(尾州)’, ‘사つま보우후’ 등 防葵의 일본명을 수록하였는데⁶⁹⁾, 이중 ‘닌진’은 人參, ‘보우후’는 防風을 나타낸다. 따라서 和名을 제외한 일본어 명칭은 각각 ‘보탄닌진(=牡丹人參)’, ‘히라닌진(=平野人參)’, ‘御赦免닌진(=御赦免人參)’, ‘御免닌진(=御免人參)’, ‘五島보우후(=五島防風)’, ‘키보우후(=木防風)’, ‘케쯔리보우후(=削り防風)’, ‘쿠히보우후(쿠히防風; 쿠히 확인 불가)’, ‘보탄보우후(=牡丹防風)’, ‘사つま보우후(=薩摩防風)’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그리고 ‘朝鮮人參’으로 잘못 불리고 있는데, 잎은 牡丹의 잎과 비슷하나 작고, 흰색을 띤 가루가 붙어 있는 것 같다. 씨에서 싹이 난지 3년 정도 되어야 꽃과 열매가 난다. 그 잎은 처음에는 여러 개가 모여 나는데, 3년 정도 된 것은 꽃대가 3~4척 정도 자라고 잎이 어긋나며, 잎 사이에서 가지가 나온다. 여름에 가지 끝마다 작고 흰 꽃이 피는데 우산모양을 이루고 大葉芎藭과 비슷하다. 꽃이 핀 이후에 열매가 난다. 또는 大葉川芎과 비슷하다. ... 옛날에 허가를 받은(御免を蒙り) 어린뿌리를 제조하여 和人參에 보충하여 판매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御メン(허가받은)人參 등의 이름이 있었다. 오래된 뿌리는 크고 흰색이며, 지금은 세로로 갈라서 削り防風으로 부르며 파는데 이 防風은 僞物이 된다. 肥前国(현 규슈九州 사가현佐賀県 및 일부 나가사키현長崎県)의 五島(현 고토열도五島列島)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어 나가기 때문에 五島防風이라고도 불린다(種子ヲ傳ヘテウユ 世上ニ誤テ朝鮮人參ト云 葉ハ牡丹ノ葉ニ似テチイサク 自色ヲ帶テ粉ヲカケタルガ如シ 子生ヨリ三年ニシテ花實ヲ生ズ 其葉初ハ數箇叢生ス 三年ノモノハ臺ヲ抽ヅルコト三四尺葉互生ス 葉間ニ枝ヲ生ジ 夏月枝梢ゴトニ小白花ヲ開キ 傘ヲナスコト 大葉芎藭ノ如シ 花後實ヲ生ズ 又大葉川芎ノ如シ 實熟シテ苗根共ニ枯ル 故ニ二年ノ秋根ヲ取り用ユ 古ハ御免ヲ蒙リ嫩根ヲ製シテ 和人參ニ充テ賣ルコトアリ 故ニ御メン人參等ノ名アリ 老根ハ大ニシテ白色 今ハ其根ヲ縦ニ剖キ 削り防風ト稱シ賣ル コレ防風ノ僞物ナリ 肥前ノ五島ニテ多栽エ出ス 故ニ五島防風トモ云フ)라고 하여 防葵에 ‘御赦免닌진(御赦免人參)’, ‘御免닌진(御免人參)’, ‘五島보우후(五島防風)’ 등의 명칭이 부여된 연원을 설명하였다⁶⁹⁾.

즉, 防葵는 근대 이전에도 일본에서 약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일부 지역에서 人參을 代用했기 때문에 ‘牡丹人參’, ‘平野人參’, ‘御赦免人參’, ‘御免人參’ 등 人參(닌진_{닌진})이 포함된 명칭이 부여되었고, 특히 식물형태가 牡丹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牡丹人參(보탄닌진_{보탄닌진})’으로 통용된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人參을 대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으로 인해 실제 人參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 防風과 형태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는 기록 및 일부 중국 문헌에서 防風을 代用했던 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 유통 환경 및 약재 사용에서 防風을 대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防風(보우후_{보우후})이 포함된 명

칭을 부여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식물형태, 제조방법, 산지 등에 따라 牡丹防風, 木防風, 削防風(또는 削り防風=牡丹人參), 薩摩防風, 五島防風 등 다양한 防風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 중 식물형태의 유사성으로 인해 牡丹防風(보탄보우후_{보탄보우후})이 防葵의 기원식물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근대 이후 일본에 식물분류학이 도입되면서 이전 문헌들의 삽화와 식물형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Flora Koreana》, 《朝鮮植物名彙》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牡丹防風(보탄보우후, 약재명: 長命草)의 기원식물이 *Peucedanum japonicum* THUNB.로 정해지고, 이후 여러 문헌에서 해당 명칭이 사용되면서 현재의 명칭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23,98-100)} (Figure 1B).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防風의 기원식물 및 약재의 형태적 특징에 관해서는 《本草經集注》와 《本草圖經》에 기록된 내용의 대부분과 일부 삽화가 후대 서적에 이어지면서 현재 공정서 내용에 포함되어 기원에 관한 논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중에 防風으로 통용되었던 약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였으나, 이들은 防風의 기원약재로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선시대 서적에는 防風의 기원식물로 ‘병풍나물’이 사용되었으나 식물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나 삽화 형태의 기록이 없어서 기원 식물을 특정할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서적에 갯기름나물과 그에 대한 일본명인 牡丹防風이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약용자원화 과정에서 갯기름나물에 牡丹防風, 植防風, 山防風 등 ‘防風’이 포함된 명칭이 유지되었고, 대부분 防風의 대용품으로 사용되었다. 그 중 植防風으로 유통되는 약재의 기원식물을 갯기름나물로 확정하고, 이를 공정서에 수록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에는 防風의 위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근대 이전 일본에서 발간된 서적에 防風으로 통용되었던 다양한 약재들이 기록되었고, 이 중 牡丹防風, 木防風, 削防風(또는 削り防風=牡丹人參), 五島防風 등으로 불린 약재가 모두 防葵를 지칭하였으며, 이는 牡丹防風(보탄보우후)으로 통일되어 일본에서 *P. japonicum*의 기원식물명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이 내용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식물명에 적용되어 ‘갯기름나물 = *P. japonicum* = 牡丹防風’으로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갯기름나물에 防風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원인은 일본의 약용식물 기록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다만, ‘植防風’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별도로 중국에서는 防葵가 濱海前胡 *P. japonicum*은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하였고, 대신 前胡의 일종이거나 또는 短毛独活(국명: 어수리) *Heracleum moellendorffii* Hance로 추정하는 연구를 보고하였기 때문에¹⁰¹⁾, 향후 防葵의 기원에 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V. 결 론

갯기름나물의 약재명에 '防風'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연유를 찾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의 고문헌 및 현대 문헌을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防風의 기원과 갯기름나물 약재명의 유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防風은 《本草經集註》와 《本草圖經》에서 제시된 기원식물 설명이 중국의 淸代 문헌까지 유사하게 이어졌고, 근대 이후 *Saposhnikovia divaricata*가 기원식물로 정해져 공정서에 수록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2. 조선시대에는 '병풍나물'이 防風의 기원식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식물 묘사나 삽화가 없어 그 당시 병풍나물을 특정할 수 없었고, 일제강점기 이후 갯기름나물 *Peucedanum japonicum*과 일본명인 牡丹防風이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3. 일본에서 防蕒를 牡丹防風, 木防風, 削防風, 五島防風 등으로 통용하였고, 이 중 牡丹防風(ボタンボウフウ)이 근대화 이후 *P. japonicum*의 기원식물명으로 정해지고 일제강점기 동안 갯기름나물에 적용되어 '갯기름나물 = *P. japonicum* = 牡丹防風'으로 정리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이후 약용자원화 과정에서 갯기름나물에 牡丹防風, 植防風, 山防風 등 防風이 포함된 명칭이 유지되었고, 이 중 시중의 植防風을 갯기름나물과 동일한 것으로 확정하여 공정서에 수록하였으나, 현재에는 植防風을 防風의 위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植防風의 명칭 유래는 찾을 수 없었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갯기름나물의 약재명에 防風이 포함된 것은 일본의 식물명칭 정리 과정과 이것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식물명 정리에 미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었다. 植防風을 防蕒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고 현재는 防風의 위품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植防風 또한 공정서 수록에 의해 약재로 사용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향후 植防風의 본초학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21R1A2C1095558).

References

1. The Ministry of Korean Food and Drug Safety. The Korean Herbal Pharmacopeia, KFDA Notification No. 2020-73, 2020.
2. Song HS, Cho W. Growth pattern and species composition by landform and seaside distribution of *Peucedanum japonicum* Thunb. community group in Korea.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2007 ; 21(1) : 74-81.
3. The Ministry of Korean Food and Drug Safety. Food Code. KFDA Notification No. 2023-29, 2023.
4. Kim SH, Lee EB, Kim JS, Choi JH, Jeong UY, Heo JH, Shim CK, Lee SH.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of *Peucedanum japonicum* grown in the plant factory with artificial lights. Food Engineering Progress. 2021 ; 25 : 391-400. DOI : 10.13050/foodengprog.2021.25.4.391.
5. Kim CW. Studies on the constituents of root of cultivated *Peucecanum japonicum* Thunberg (I). Hyodaenonmumjip. 1972 : 443-7.
6. Whang WK, Lee SJ, Kim H, Cho H, Lee KS, Kang IH, Ham I. Standardization of Peucedani Radix. Korean Journal of Pharmacognosy. 2001 ; 32 : 292-6.
7. Cho YH, Seong NS, Ham I, Choi HY. A comparative study on the immunization and anti-cancer effect of the roots and aerial part of *Peucedanum japonicum* Thunb. The Korea Journal of Herbology. 2004 ; 19 : 137-45.
8. Kim DH, Han CS, Kim GE, Kim JH, Kim SG, Kim HK, Oh OJ, Whang WK. Biological activities of isolated compounds from Peucedani Radix. Yakhak Hoeji. 2009 ; 53 : 130-7.
9. Chun J, Kim J, Kim YS. 3',4'-Diseneciolykhellactone from *Peucedanum japonicum* Thunb. induces apoptosis mediated by inhibiting STAT3 signaling in human gastric cancer cells. Korean Journal of Pharmacognosy. 2018 ; 4 : 225-30.
10. Choi BR, Yoon D, Kim GS, Han KS, Choi DJ, Lee YS, Hyun DY, Lee DY. Metabolic profiling and method validation of marker compounds from *Saposhnikovia* Radix and *Peucedani Japonici* Radix.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2020 ; 63 : 393-9. DOI : 10.3839/jabc.2020.051.
11. The Ministry of Korean Food and Drug Safety. The Korean Pharmacopoeia 12th ed. KFDA Notification No. 2023-2, 2023.
12. Compilation Committee of Herbology. Practical book of Herbology [Bonchohak Silseupseo] 2nd ed. Wonju : Eui-Bang Press, 2023 : 24.
13. Compilation Committee of Herbology. Herbology [Bonchohak] 4th ed. Seoul : Younglimsa, 2021 : 164-6, 488-9.
14. Kim JM, Erkhembaatar M, Lee GS, Lee JH, Noh EM,

- Lee M, Song HK, Lee CH, Kwon KB, Kim MS, Lee YR. *Peucedanum japonicum* Thunb. ethanol extract suppresses RANKL-mediated osteoclastogenesis. *Experimental and Therapeutic Medicine*. 2017 ; 14 : 410-6. DOI : 10.3892/etm.2017.4480.
15. Chun JM, Lee AR, Kim HS, Lee AY, Gu GJ, Moon BC, Kwon BI. *Peucedanum japonicum* extract attenuates allergic airway inflammation by inhibiting Th2 cell activation and production of pro-inflammatory mediators.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2018 ; 311 : 78-88. DOI: 10.1016/j.jep.2017.09.006.
 16. Kang SY, Oh TW, Kim JW, Park YK. Effect of the water extract of *Peucedani Japonici Radix* on ovalbumin-induced allergic asthma in mice. *The Korea Journal of Herbology*. 2013 ; 28 : 1-7. DOI: 10.6116/kjh.2013.28.6.1.
 17. Chun JM, Lee AY, Kim JS, Choi G, Kim S-H. Protective effects of *Peucedanum japonicum* extract against osteoarthritis in an animal model using a combined systems approach for compound-target prediction. *Nutrients*. 2018; 10 : 754. DOI: 10.3390/nu10060754.
 18. Gil TY, Jin BR, An HJ.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 alleviates atopic dermatitis-like inflammation via STAT/MAPK signaling pathways *in vivo* and *in vitro*. *Molecular Immunology*. 2022; 144 : 106-16. DOI: 10.1016/j.molimm.2022.02.003.
 19. Editorial Committee of the Chinese Materia Medica. *Chinese Materia Medica (中华本草)* vol. 5. Shanghai : Shanghai Scientific and Technical Publishers. 1999 : 1006-7.
 20. 滨海前胡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 in Murray. *Flora of China* vol. 14. 2005 : 182-92. [cited June, 28,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www.efloras.org/florataxon.aspx?flora_id=2&taxon_id=200015732.
 21. 日本前胡 *Peucedanum japonicum* Thunb. *Taiwan Plant Names* vol. III. 1037. [cited June, 28,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www.efloras.org/florataxon.aspx?flora_id=101&taxon_id=200015732.
 22. Liu X, Chu K, Ding Z, Wu J. Wild resources and research of officinal Psammophytes in Fujian Province. *Chinese Wild Plant Resources*. 2016 ; 35 : 41-6.
 23. ボタンボウフウ *Peucedanum japonicum* Thunb. var. *japonicum*. *Japanese name of plant-Scientific name index YList*. [cited June, 28,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ylist.info/ylist_detail_display.php?ass=5846.
 24. Sakaue M, Yasueda A, Ito T, Ohno S. Effect of *Peucedanum japonicum* Thunb on body composition and biochemical examination of blood. *Japanese Journal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8 ; 15 : 121-5. DOI: <https://doi.org/10.1625/cam.15.121>
 25. *Peucedanum japonicum* Thunb. *Korean Plant Names Index*. [cited June, 28,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www.nature.go.kr/kpni/stndasrch/dtl/selectNtnStndaPlantList2.do#>.
 26. *Unknown*. *Shennongbencaojing [神農本草經]*. Han period, 25-220. Gu GG, Yu TM, ed. *Shennongbencaojing [神農本草經]*. Harbin : Harbin Publishing House. 2007: 28.
 27. Tao HJ [陶弘景]. *Bencaojingjizhu [本草經集注]*. Liang period, 456-536. Shang ZJ, Shang YS, ed. *Bencaojingjizhu(Jijiaoben) [本草經集注(輯校本)]*. Beijing :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4 : 261-2.
 28. Su J [蘇敬], et al. *Xinxiubencao [新修本草]*. Tang period, 659. He QH, ed. *Xinxiubencao [新修本草]*. Beijing : Shanxi Science & Technology Publishing House. 2012 : 152, 163.
 29. Wang DZ [王燾撰]. *Waitaimiyao [外臺秘要]*. Tang period, 752. *Waitaimiyaofang [外台秘要方]* Shanxi : Shanxi Science and Technology Publishing House. 2013 : 227, 1097.
 30. Tang SW [唐慎微]. *Jingshizhengleidaguanbencao [經史證類大觀本草]*. Song period, 1108. *Jingshizhengleidaguanbencao [經史證類大觀本草]*. Seoul : Sungmunsa. 1976: 149-50, 184-5.
 31. Tang SW [唐慎微], Zhang CH [張存惠], et al. *Chongxiuzhenghejingshizhengleibeiyongbencao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Song period, 1249. *Jungsojeonghwagyeongsajeungryubiyongboncho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Seoul : Daeseongmunhwasa. 1983 : 154-5, 179-80.
 32. Zhu S [朱橧]. *Jiuhuangbencao [救荒本草]*. Ming period, 1406. Ni GJ, Zhang CJ ed. *JiuhuangbencaoJiaozhu [救荒本草校注]*. Beijing : China Agriculture Press. 2009 : 22-4.
 33. Zhu S [朱橧]. *Pujifang [普濟方]*. Ming period, 1406. *Bojebang [普濟方]*. Seoul, Korea: Hanseongsa. 1981 : 2955.
 34. Liu WQ [劉文泰] et al. *Bencaopinhuijingyao [本草品彙精要]*. Ming period, 1505. Lu Z, Li ZY ed. *Bencaopinhuijingyao [本草品彙精要]*. Beijing :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 : 136, 172-3.
 35. Chen JM [陳嘉謨]. *Bencaomengquan [本草蒙筌]*. Ming period, 1565. Zhang RX, Han XJ, Zhao HL ed. *Bencaomengquan [本草蒙筌]*. Beijing : Publishing House of Ancient Chinese Medical Books. 2008 : 96, 110.
 36. Li SZ [李時珍]. *Bencaogangmu [本草綱目]*. Ming period,

1596. Korean Medical Classics DB. [cited June, 28,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s://mediclassics.kr/books/190/volume/17#content_262.
37. Wang Q [王圻]. Sancaituhui [三才圖會]. Ming period, 1609. Chinese Text Project. [cited June, 28,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s://ctext.org/library.pl?if=b&file=7914&page=4>.
38. Li ZL [李中立]. Bencaoyuanshi [本草原始]. Ming period, 1612. Zheng JS, et al, ed. Bencaoyuanshi [本草原始]. Beijing :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07 : 46-8.
39. Bao shan [鮑山]. Yecaibolu [野菜博錄]. Ming period, 1622. Chinese Text Project. [cited June, 28,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s://ctext.org/wiki.pl?if=b&chapter=995226>.
40. Gu TJ [顧元交]. Bencaohuizhan [本草匯箋]. Qing period, 1666. Liu GS, et al, ed. Bencaohuizhan [本草匯箋]. Beijing :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5 : 36-7.
41. Zhang ZC [張志聰]. Bencaochongyuan [本草崇原]. Ming period, 1674. In: Liu XP, ed. Bencaochongyuan [本草崇原]. Beijing, China: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8 : 32.
42. Wang A [汪昂]. Bencaoyidu [本草易讀]. Ching period, Zhang YH ed. Bencaoyidu [本草易讀]. Taiyuan: Shanxi Science Technology Publishing House. 2015: 159-60.
43. Wu Q [吳其濬]. Zhiwumingshitukao [植物名實圖考]. Qing period, 1848. Zhang RX, Wang JK, Zhang W, ed. Zhiwumingshitukaoxiaoshi [植物名實圖考校釋]. Beijing : Publishing House of Ancient Chinese Medical Books, 2007 : 121-2, 125-6.
44. Institute of Materia Medica Chinese Academy of Medical Science et al. Zhong Yao Zi 1st ed. [中藥志第一版]. Beijing, China: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59 : 256.
45. Institute of Materia Medica Chinese Academy of Medical Science et al. Zhong Yao Zi 2nd ed. [中藥志第二版]. Beijing, China: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2 : 364-8.
46. Unknown. Umayangjeoyeomyeokbyeongchiryobang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Joseon dynasty, 1541. Korean Medical Classics DB. [cited June, 28,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s://mediclassics.kr/books/151>.
47. Heo J. Eonhaetaesanjipyo [諺解胎產集要]. Joseon dynasty, 1608. Korean Medical Classics DB. [cited June, 28,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s://ediclassics.kr/books/47>.
48. Heo J. Donguibogam [東醫寶鑑]. Joseon dynasty, 1613. Korean Medical Classics DB. [cited June, 28,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s://mediclassics.kr/books/8/volume/21#content_1447.
49. Yu H [柳僖]. Mulmyeonggo [物名考]. Joseon dynasty, c.a. 1820. Kim HT ed. Mulmyeonggo: A book for the Names of Objects, Ha(下). Seoul, Korea: Somyungbooks, 2019 : 163.
50. Hwang DY [黃度淵]. Hwang PS [黃泌秀] ed. Jeungmaek Bangyakhappyeon [證脈方藥合編]. Joseon dynasty, 1887. [cited June, 28,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List.do?queryText=%E8%AD%89%E8%84%88%E6%96%B9%E8%97%A5%E5%90%88%E7%B7%A8%3AALL_NI_TOC%3AAND&query=%E8%AD%89%E8%84%88%E6%96%B9%E8%97%A5%E5%90%88%E7%B7%A8#none.
51. Shin HY. Danbangbiyogyongheomsinpyeon [單方秘要經驗新編]. Korea under Japanese rule, 1913. Korean Medical Classics DB. [cited June, 28,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s://mediclassics.kr/books/99>.
52. Jeong TH, Do BS, Lee DB, Lee HJ. Chosun Sikmul Hyangmyeongjip [朝鮮植物鄉名集]. Seoul : Chosun Bakmul Yeonguhoe (Chosun Museum Research Society), 1937 : 126, 127.
53. Jeong TH, Do BS, Sim HJ. Nomina Planatarum Koreanum [朝鮮植物名集]. Seoul : Chosun Saengmul hakhoe. 1949 : 95, 96.
54. Lee YN, Chu SU. Illustrated Flora of Korea. Seoul : Daedongdang. 1956 : 89.
55. Yuk CS, An DG. Hyeondae Bonchohak [現代 本草學]. Seoul : Gomunsa. 1972 : 234-5.
56. Song JT, Park MG, Kim YC. Hangukjawonsikmul chongram [韓國資源植物總覽]. Seoul : Gukchaekmun hwas. 1974 : 534, 538.
57. Kim JS. Pyojun Bonchohak [標準 本草學]. Seoul : Jinmyong Publisher. 1975 : 162-3.
58. Park IH, Lee SR, Jeong TH. Sinpan Yakchosikmul Jaebae [新版 藥草植物栽培]. Seoul : Sinjin Munhwasa. 1976 : 152-3.
59. Han DR et al. Hyeondae Sangyakhak 2nd ed. [現代生藥學 改訂版]. Seoul : Hangukhakseupgyojaesa. 1983 : 341.
60. Lee TB. Illustrated Flora of Korea, 3rd ed. Seoul, Korea: Hyangmunsa, 1985 : 592.
61. Jeong BS, Shin MG. Dohae Hyangyak(Saengyak) daesajeon 2nd ed. [圖解 鄉藥(生藥)大事典(藥物篇)]. Seoul : Yeonglimsa. 1998 : 428.
62. Fukae S [深江輔仁]. Honzowamyō [本草和名]. Heian Period, 918. National Diet Library Digital Collections. [cited July, 21,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s://dl.ndl.go.jp>.
63. Minamoto S [源順]. Wamyoruijusho [倭名類聚抄] Heian period, 931-938. National Diet Library Digital Collections. [cited July, 21,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s://dl.ndl.go.jp>.

64. Hitomi H [人見必大]. Honchoushokukan [本朝食鑑]. Edo period, 1697. National Diet Library Digital Collections. [cited July, 21,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s://dl.ndl.go.jp>.
65. Inou J [稻生宣義]. Hoshazensho [炮炙全書]. Edo period, 1702. National Diet Library Digital Collections. [cited July, 21,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s://dl.ndl.go.jp>.
66. Kaibara E [貝原益軒]. Yamato honzo [大和本草]. Edo period, 1709. National Diet Library Digital Collections. [cited July, 21,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s://dl.ndl.go.jp>.
67. Terashima R [寺島良安]. Wakansansaizue [倭漢三才圖會]. Edo period, 1712. National Diet Library Digital Collections. [cited July, 21,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s://dl.ndl.go.jp>.
68. Okabayashi K [岡林清達]. Mizutani T [水谷豊文] ed. Buppinshikimei [物品識名]. Edo period, 1809. National Diet Library Digital Collections. [cited July, 21,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s://dl.ndl.go.jp>.
69. Ono R [小野蘭山]. Ono S [小野職孝]. Jutei Honzou koumokukeyimou [重訂本草綱目啓蒙]. Edo period, 1847. National Diet Library Digital Collections. [cited July, 21,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s://dl.ndl.go.jp>.
70. Kariya Y [狩谷椽齋]. Senchuwamyouruijushou [箋注倭名類聚抄]. Meiji period, 1883. National Diet Library Digital Collections. [cited July, 21,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s://dl.ndl.go.jp>.
71. Nakai T. Flora Koreana, The journal of the College of Science, Imperial University of Tokyo, Japan. 1909 ; 26 : 266, 273.
72. Mori T. An enumeration of plants hitherto known from Corea. Published by the government of Chosun, Seoul, Corea. 1922 : 272, 274.
73. Chinese Pharmacopoeia Commission, Pharmacopoeia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edition, Beijing : China Medical Science Press, 2015.
74. Japanese Minister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The Japanese Pharmacopoeia 17th edition. The MHLW Ministerial Notification No.64, 2016.
75. *Saposhnikovia divaricata* (Turcz. ex Ledeb.) Schischk. Korean Plant Names Index. [cited June, 28,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www.nature.go.kr/kpni/stndasrch/dtl/selectNtnStndaPlantDtl1.do?orGId=kpni>.
76. 防風 *Saposhnikovia divaricata* (Turczaninow) Schischkin in Schischkin & Bobrov. Flora of China, vol. 14, 2005 : 204. [cited June, 28,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www.efloras.org/florataxon.aspx?flora_id=2&taxon_id=200015899.
77. Shishkin BK ed. Flora of the U.S.S.R, vol 17, 1973 : 47. [cited June, 28,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s://www.biodiversitylibrary.org/page/30356088#page/581/mode/1up>.
78. *Saposhnikovia divaricata* (Turcz.) Schischk. The World Flora Online, id: wfo-0000435280. [cited June, 28,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www.worldfloraonline.org/taxon/wfo-0000435280>.
79.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Korean Pharmacopoeia 3rd ed.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Notification No. 40. 1976.
80.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Korean Pharmacopoeia 4th ed.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Notification No. 82-4. 1982.
81.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Korean Pharmacopoeia 5th ed.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Notification No. 87-20. 1987.
82.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Korean Pharmacopoeia 6th ed.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Notification No. 92-28. 1992.
8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Korean Pharmacopoeia 7th e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tification No. 1997-92. 1997.
84. Choi JH. A Study of 『Eonhaetaesanjipyo』 for Sino-Korean. Journal of Korean Language Research Circle. 2008 ; 22 : 317-48.
85. Yi S. A linguistic approach to Seong Gyeong Jik Hae Gwang Ik. Research journal of Korean Church History. 2013 ; 41 : 143-78.
86. Park D, Ahn M. The Dating of the Juchanbang manuscript based on orthographic evidence and phonological changes. Korean Historical Linguistics. 2019 ; 28 : 233-68. DOI : 10.14727/khl.2019.28.233.
87. Choi JU. A presentation aspect and meaning of the Maternal instinct in Female folk song. The Donam Language & Literature. 2016 ; 30 : 99-124. DOI: 10.17056/donam.2016.30..99.
88. Choi JU. The meaning of the female folk song and lyrics organization of the Daboknyeo(多福女)minyoo. The Korean Folk Song. 2008 ; 22 : 347-75.
89. Lee JH. A review of whether aspiration in Sino-Korean was related to Zhuóyīnqīnghuā(濁音清化) in Chinese or not, and the presentation of classified types on aspiration. Journal of Korean Linguistics. 2008 ; 53 : 3-33. DOI: 10.15811/jkl.2008..53.001.
90. Ryu JY. Study on the name of objects -Tangaekpyeon in Donguibogam-.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987 ; 12 : 1-45.
91. *Astilboides tabularis* (Hemsl.) Engl., *Parasenecio firmus* (Kom.) Y.L.Chen, *Parasenecio pseudotaimingasa* (Nakai) B.U.Oh. Korean Plant Names Index. [cited June, 28,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www.nature.go.kr/kpni/stndasrch/dtl/selectNtnStndaPlantList2.do;jsessionid=CE895>

- 20E783558F8FFA4E8165532C56D.nature.
92. Kim CW. Studies on the constituents of root of cultivated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 (I).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 Research Bulletin. 1972 ; 10(1) : 443-7.
 93. Nam JY, Ryu KS. Pharmacological studies on Korean “Bang Poong”. Korean Journal of Pharmacognosy. 1975 ; 6 : 151-9.
 94. Chung IC, Yang HS. Pharmacognostical study on the roots of *Phelloterus littoralis* BENTHAM. Busandaehakgyo Nonmunjip. 1970 ; 11 : 543-6.
 95.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Korean Herbal Pharmacopeia.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Notification No. 84-23. 1984 : 83.
 96.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Korean Herbal Pharmacopeia.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Notification No. 85-54. 1985 : 175.
 97.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Korean Herbal Pharmacopeia.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Notification No. 87-86. 1987 : 234.
 98. Fujita M, Mashimo T. Anatomical characters on some Apiaceae (Umbelliferae) fruits. The Journal of Japanese Botany. 1949 ; 23(1-2) : 25-9.
 99. Hata K, Kozawa M, Ikeshiro Y, Yen KY. New coumarins isolated from the root of *Peucedanum formosanum* HAYAYA and *Peucedanum japonicum* THUNB. Yakugaku Zasshi. 1968 ; 88 : 513-20.
 100. ボタンボウフウ. Chiba University Repository for Access to Outcomes from Research. [cited July, 20, 2023]. Available from: URL ; <https://opac.ll.chiba-u.jp/da/curator/900057709>.
 101. Tao YW, Song PS. Textual research on the original plant of Fang Kui. Zhong Yao Cai. 1997 ; 20 : 639-41.